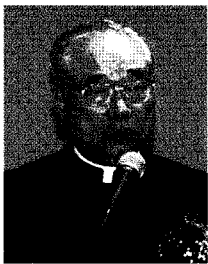


은수잡록

隱修雜錄



1 | 손(損)과 득(得)



김창렬 바오로 주교

세상사에는 손(損)과 득(得)의 양면이 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사람 다시 보기, 사건 다시 살피기, 역사 바로 읽기를 하도록 하자. 신앙의 눈으로 보고 읽기를 하자는 말이다. 우리가 새로운 눈

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총괄적으로 살펴본다면 5·16 군사 혁명이라든가 소위 일제 시대에서도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잃기만 하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하나에서 백까지 모두가 손이요 악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판단력이 흑백논리에 의해 손상된 탓이리라. 인간 역사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실 일이다. 하느님만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심판자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에도 손과 득이 있고 전제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손과 득이 있다. 나는 일찍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 준 적이 있다.

“우리는 모두 문민 독재도 치러 보았고 군사 독재도 겪어 보았다. 건국 후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이 군사 독재가 아니라 문민 독재였으며, 그것도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는 데서 여러 해 동안 글과 정치를 배워 온 사람에 의한 것이었고 우리 <민국>의 기초가 문민 독재로 다져졌다는 이 사실이 현대 한국 정치사의 아이러니라기에는 너무나 원통하고 남부끄러운 일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었다. 민주도 민주 나름이요 문민도 문민 나름이라는 교훈이요, 독재는 어느 편에서도 가능하다는 교훈이다.

우리는 제1공화국의 뒤를 이은 또 하나의 문민 정부의 탄생을 목격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숙원이 성취되는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국민 모두가 몸부림쳐서 출산하게 된 정부였고, 더욱이 많은 젊은 학생들의 선혈의



맷가로 생겨난 것이었기에, 그 문민 정부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기는 얼마를 살지 못하고 살해되었다. 그 출산이 힘들고 귀중했던 만큼 그 단명은 너무나도 애석하고 비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2 공화국을 얻어 버린 주범과 종범, 영아 살해극의 주연과 조연을 과연 우리는 분간할 수 있겠는가? 공정한 판단력과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진다. 나로 말하면, 국민 모두가 공범자들이요 영아 살해극의 공연자(共演者)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정치인과 언론인이 다른 누구보다도 그 일을 거들었다는 것은 역사의 증언이다.

(중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주화 운동의 결실인 제2공화국의 도피 사건에서도 자연과 초자연의 두 차원을 붙들어야 한다. 무슨 일에서나 자연과 은총의 양면을 동시에 보려고 노력하는 나에게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고 싶다. 즉 그 당시의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를 적화 통일의 호재로 판단하고 재 남침을 꾀하던 자의 계획을 강력한 군사 정권을 시켜 포기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취하신 비상조치로 보고 싶다. 재 남침의 불타는 야욕을 성취하지 못 하게 하는 그 사람, 병마지권을 쥐고 있는 그 대통령이 얼마나 밋고 두려웠으면 그를 제거하기 위해 특공대를 침투시켰겠으며 저격수를 밀파했겠는가? 내가 그 혁명을 들어 불행 중 다행한 일로 말한다고 해서 놀랄 것도 없다. 본디 이성과 신앙은 각기 그 관점을 달리하는 법이며, 어떤 사건에 대한 신학자의 판단이나 해석은 일반 사가의 그것과 같을 수가 없는 법이다. “큰 악을 피하기 위하여 그보다 작은 악은 허용됨이 가하다.”라는 가톨릭 윤리학의 공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는 당시의 사정을 판단하고 있다.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 백성을 파멸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과에 상응한 속죄를 군사 정권을 시켜 치르게 하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경고를 경

시하는 우(愚)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위 일제 시대에도 손과 득은 공존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필시 극단론자거나 흑백론자일 것이다. 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대에도 득이 있었고, 더구나 그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정하게 되었다. 물론 일제로 인해 우리 조국은 국가적 망신과 민족적 수치를 비롯해서 잃은 것이 너무나 크고 많았다. 그 시대는 과시 환난의 시대요 암흑의 시대였다. 일본을 우리나라라고 해야 했고, 일본어를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야 했으며, 일본의 역사를 우리의 국사라고 해야 했고, 일장기(일본 국기)를 우리 국기라 하여 일본의 경축일이나 기념 일에는 모든 집 대문에 그것을 게양하여 펴럭이게 했으며, 일본의 국가(國歌)를 우리의 국가로 불러야 했고,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성(姓)마저 일본식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까지 하게 되었으니, 그 이상 무엇을 더 말하랴! 우리 속담에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라는 표현보다도 더 강한 맹세어가 있는데, “성(姓)을 갈겠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자기 말에 대한 최후, 최종적인 맹세의 말로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조선계 일본인이 된 우리는 모두 현인신(現人神)으로 둔갑한 일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망배하는 소위 동방요배(東方遙拜)라는 것을 해야 했고, 뺨질나게 신사참배라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했던 것이다. 연전에 소위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것이 나왔다던데, 일제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그 사전에 오르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자못 궁금하다.

나는 소학생 시절에 철없이 일본국 사람으로 인정된 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대일본 제국국민임을, 황국 신민(皇國臣民)임을 말이다. 그 당시 소위 <황국 식민 선서>라는 것을 가끔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자세를 바로잡고 정건한 마음으로 선서를 하였던 것이다. 일지사변(日支事變)이 발발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일본군의 승전보가 자주 전해졌는데, 큰 도시들이 함락될 때마다 주야를 번갈아 가며 축하 행렬을 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주간 행렬에서는 일장기를 휘날리면서, 야간 행렬에서는 등불을 흔들면서 신나게 일본 군가를 불렀다. 이렇게 된 데에는 존경받던 일본인 선생이 몇 해 동안 우리 반의 담임이었던 탓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어 머리가 트이고 눈이 뜨이게 된 중학생 시절에는 모르는 사이에 일본에 대한 감정은 적개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인이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완전히 우리 땅에서 자취를 감추고 난 후에도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그 감정은 수그러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가기만 했다. 이 일에 있어서 내 의지의 역작용은 불가능했다. 한민족의 피를 받은 내 마음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다. 내가 성직자가 되고 나서도 이 사정만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잘되어 간다는 소문을 듣거나 기사를 읽게 될 때마다 증오심과 시기심이 합세하여 나를 괴롭히곤 하였다. 성직자라는 내 신분도 아랑곳없이 '왜놈'이란 말이 거침없이 내 입에서 자주 튀어나왔다. 혹 그곳에서 천재지변(天災地變) 소식이 들려 왔을 때에는 동정은 고사하고 쾌재(快哉)를 부르짖기까지 하였다. 그리스도인이나 사제로서의 내 신분에 대한 자각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해외에 나가는 길에 일본을 들른 적이 있었다. 두어 번 둘러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에 발을 디디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하였다. 그들이 보기 싫고 또 그들의 말이 듣기 싫기도 했거니와, 그 나라에 다만 얼마라도 돈을 떨어뜨려 그 부(富)에 보태 주는 것이 싫어서이기도 했다. 내 민족적 양심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순수한 애국심도 아니고 민족애도 아닌 이 악감정이 내 정신과 영혼을 쪼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마

침내 이 지옥과도 같은 이상 심리적 질곡을 벗어 버리기 위해 주님께 특별한 기도를 자주 드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내 마음에 들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매우 뜻밖의 말씀이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내가 관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내 뜻이나 내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에게 소위 일제 시대가 있게 한 것도 나다. 나는 너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본인들을 부린 것이다. 너희 잘못에 대한 탄압과 고통으로서 너희의 죄악을 속죄시키는 한편, 많은 것을 주게 하였다. 한일 합방 사건 당시의 너희 나라 실정을 공정한 눈으로 살펴본다면, 그것이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곳곳이 제 몸을 가누어 나갈 수 없었음을 너는 깨달을 것이다. 내가 만일 사리를 공평하게 분별할 줄 안다면 절대로 그럴 힘이 너희 조선에는 없었다는 것과, 따라서 어느 나라의 손아귀에 잡히더라도 잡힐 수 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암울했던 일본 식민지 시대에 너희가 얻은 것이 과연 전무하였단 말이나?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만일 균형 있는 판단력을 지녔다면, 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적잖이 있었다는 답을 주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 당시 너희 나라의 국고는 바닥이 나 있지 않았느냐? 그것도 국가적인 대역사를 추진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작 경복궁이라는 집 한 채 지은 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더냐? 이 얼마나 빈약한 국가 재정이었더냐? 그런 판국에 국가로서 무슨 힘이 있어 외적을 물리쳐 나라를 보전하고 겨레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 경인선 철도와 서울역 동대문 간의 전차길 부설조차 다른 나라가 해 주지 않았더냐? 너희 자신이 그것 하나 할 수 없었던 주제에 열강의 침략을 무슨 힘으로 막아 낼 수 있었겠느냐? 그 열강 중에서 하필 왜국(倭國)한테 먹혔다는 것이 억울하다 하겠다마는, 어느 다른



강국에 당했다 한들 어찌 그것이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가령 그 나라가 제정 러시아였다면 어떠했겠느냐?

너희 적국 일본이 남겨 놓고 간 것은 대단히 많고 크다 해야 할 것이다. 너희 나라가 서구 문물과 접하게 하여 모든 면, 모든 분야에서 신흥과 부흥과 개혁을 가져다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야말로 틀림없는 하나의 유신이었다. 한두 가지만 예로 들겠다. 부산 신의주 간의 복선 철도 부설을 비롯한 사통 팔달의 철도 및 도로망 건설, 서해안의 광활한 습지와 갯벌들을 옥토로 바꾸어 곡창 지대로 만든 간척 사업, 여러 단계의 교육 기관 설립, 특히 6년제 의무 교육 실시에 의한 문맹 퇴치가 그것이다. 합방 이전에는 너희 나라 백성 대부분이 무학 문맹이었지 아니었더냐? 고작 소규모의 서당에서 머리를 땅아 늘어뜨린 아주 소수의 소년들이 천자문을 배우는 정도였지 않느냐? 이 밖에 너희가 얻은 것을 하나 더 말하겠다. 그것은 너희가 대국이라고 부르던 중주국에 대한 사대사상의 사멸이다. 비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모를 당해야 했더냐?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조공을 바쳐 왔더냐? 국왕도 그 나라 황제의 인준이 있어야만 임금 노릇을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일제 통치 35년 동안에 그것이 말끔히 씻겨져 대국에 대한 열등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느냐? 네 어렸을 때 네 고장 수리 사업에 투입된 소위 대국의 쿨리(苦力)들을 너희 어린이들이 ‘짱꼬라’라는 모멸적 말로 놀리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가 대국에 대해 한 나라 국민으로서 머리를 들고 떳떳하게 그 나라 국민을 대할 수 있는 것도 일제가 만들어 준 득에 속하지 않겠느냐? 위에 말한 여러 가지 득은, 이씨 왕조가 35년 더 연장되었다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너는 시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일제의 너희 나라 통치는 내 섭리였다. 그 일제를 불러들인 것도 나요, 몰아낸 것도 나다. 나는 그 당시 너희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의 꼴과 그들이 한 것과 너희 일반 백성의 잘못에 대하여 일제를 시켜 속죄케 하였다. 그러나 너희 나라를 마치 자기네 나라처럼 발전 시키도록 그들을 이용하고 나서 그들의 몽상과는 달리 영영 너희 나라에서 몰아낸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그들을 세뇌하여 쓴 것이다. 나는 그들을 35년간 쓸 만큼 쓰고 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너희 나라에서 내쫓아 버렸다. 그들의 학정 아래서 너희가 겪은 고통과 희생, 즉 손(損)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너희 나라를 위해 그들은 저도 모르게 좋은 것들을(得) 만들어 주고 떠난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너희 나라에 투자한 것의 만분의 일도 거두어 가지 못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나는 네게 말한다. 생각해 보라. 그들이 너희를 죽인 것보다 너희끼리 서로 죽인 것이 말할 수 없이 더 많지 않느냐? 동족상잔이 있었지 않느냐? 6·25 사면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보려무나.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등 그것이 더 큰 비극이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깊이 반성할 일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후에 그때까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나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바치게 되었고, 또 주로 현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게까지도 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 순교 성인들께 전구를 청하는 것이 내 일과 중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이 못 할 소리인가? 아니다. 그것은 할 만한 소리, 아니 그리스도인인 나로서 의당 해야 할 소리다.

〈다음호에 계속〉